

- 경향섹션 SECTION
- 전체기사
 - 교육
 - 그후'後'
 - 피플
 - 건강
 - &금도일
 - 엔터테인먼트
 - 트래블
 - 아름다운 한국
 - 적과삼
 - 책
 - 기획
 - 색연연재
 - 논술핵심문항
 - 신주쿠 日本語
 - 생생 중국어
 - 스크린 영어

-21kg
만껏먹고-21kg, 잠만자도 매일-4kg

임플란트의 할리웃적인가 격은?

내 허리도 디스크?? 자가 테스트 받기

농수협법 개정안에 농협 개혁은 다빠졌다

아내가 등을 물렀다? 행복 한부부 생활 유지

[가로지르기] "프라하의 명성 함께 누릴 한국 경제파트너 찾습니다"

설원태 선임기자 solwt@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제부흥 꿈꾸는 체코 공화국 사람들

'프라하의 봄' '체코제 권총' 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인구 1000만 명의 체코(체코 공화국). 이 나라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원래 체코슬로바키아로 알려져 있었으나 1993년 1월 1일 동부의 슬로바키아가 분리돼 그냥 '체코'이다. 이 나라에는 유서깊은 건축물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어 수도 프라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유명하다. 기자는 체코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월 첫주 동안 이 나라의 몇 군데를 둘러보았다.



미르지 쿨 사장(왼쪽), 라디슬라브 토르치크 이사.

프라하는 인구 100만명의 조흔한 도시였다. 기자는 프라하 1구(區)에 위치한 전통적 분위기의 '호텔 프라하의 성(Hotel Prague Castle, info@hotelpraguecastle.cz)'의 3층방에서 그 유명한 다뉴브강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사실 기자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프라하란 도시에 대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귀국을 위해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에야 찰스교(Charles Bridge)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물어 그 강이 다뉴브강이란 걸 깨달았다. 유람선들이 유유히 떠다니는 다뉴브강(도나우강)을 좀더 즐겼어야 했는데...

주말인 지난 5일 오전과 오후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이 호텔 인근의 세인트 니콜라우스 교회, 올드 타운(Old Town), 프라하의 성 등 유명 관광지에 긴 행렬을 지어 몰려 들었다. 이 지역의 도로는 아스팔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15cm쯤의 검은색 돌로 돼 있었고, 인도(人道)도 표면이 가로 세로 6cm쯤의 작은 돌로 지어져 있었다. 이런 고풍스러운 도로는

도시의 역사성을 더하는 것 같았다.

체코 정부의 초청으로 기자와 일행이 된 사람들은 아프리카 알제리의 프랑스어 신문 '엘 와탄'(El Watan)의 아델 블리디 기자, 터키의 영어 신문 '투데이즈 자만(Today's Zaman)'의 샬라 보즈쿠르트 편집국장, 브라질의 경제신문 '발로르 에코노미코(Valor Economico)'의 다니엘 리트너(Daniel Rittner) 기자, 카자흐스탄 유럽산업협회(European Business Association of Kazakhstan)의 올라 쿠시디 국장이었다. 체코 관계자들은 관광자원 홍보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외국 언론인 초청 사업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듯했다. 기자가 만난 체코 사람들을 아래에 소개한다.

미르지 쿨(Jiri Ruckl) -- 유리제품 생산 회사 쿨 크리스탈(Ruckl Crystal)의 사장

"우리는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유리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소량밖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이 한국에서 오면 좋겠습니다."

유리 제품(수정 세공품)을 생산하는 쿨 크리스탈의 노신사 미르지 쿨 사장은 공장을 방문한 기자 일행에게 이 회사 제품의 수출 현황에 대해 말했다. "미국·중동·일본·싱가포르·러시아 등 세계 100여개 고객사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은 미국·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어요. 한국으로는 우리 제품이 조금밖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르지 쿨 사장은 쿨 크리스탈의 운영에 대해 "100%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사업도 좋은 사업(Small business is good business)"이라면서 소량의 주문이라도 정성껏 받아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고 설명했다. 숙련된 인력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드는 유리(수정) 제품은 상당히 고가품(사치품)으로 거래된다고 한다. 그는 "인터넷(www.ruckl.cz)을 통해 수출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는 체코어나 영어로 회사가 소개되어 있다. 쿨 크리스탈은 유리를 원료로 볼고 절단하는 등 세공 과정을 거쳐 여러 형태의 잔, 기념품, 트로피 등을 주문생산한다.

쿨 사장은 "최근 발생한 미국 발 경제위기의 영향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약간의 주문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특정한 주문에 의해 생산을 했었으므로 별 영향은 없다"고 대답했다. 쿨은 통역 경 가이드를 통해 체크어로 "우리 제품은 한정된 좁은 시장을 갖고 있지만, 전세계에 고급 고객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여타 저가품과는 달리 우리회사 제품의 수출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경제 위기 탓인지 체코내 유리공장 2~3개소가 문을 닫았다"면서 "금융 위기로 돈이 돌지 않는 데다, 체코의 화폐가 달러화에 비해 너무 강세를 띠어 수출이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846년 니즈보르(Nizbor)에서 창업된 쿨 유리공장(Ruckl Glass Factory)은 가족 회사 형태이다. 1948년 회사 소유권을 공산당에 빼앗겼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바뀌면서 원래 소유자들은 1992년 회사를 되찾았다. 이 회사는 그후로도 가족 회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쿨은 "회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은 170여명에 이른다.

쿨 유리 공장은 방문객을 위한 시찰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이 회사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업장을 방문하면 숙련된 직원들이 액체로 녹아 있는 유리의 원료를 고온의 로에서 고집어 내어 불기(blowing), 자르기(cutting), 조각하기(engraving), 그리기(painting) 등의 과정을 거쳐 유리제품을 생산하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다.

주한 체코 대사관의 나디아 블라소바(Nadia Vlasova) 상무관은 "조만간 한국 기업인이 골프 대회 수상자에게 줄 골프 관련 유리 트로피 제작을 쿨 유리 회사에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슬라브 토르치(Ing. Ladislav Torcik) -- 나노 트레이드(NanoTrade) 업무 담당 이사

"나노 기술제품으로 표면을 처리한 넥타이에는 케첩이나 다른 액체가 묻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넥타이를 기울이면 묻어있던 케첩이 흘러내려 넥타이는 아무런 오물의 흔적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한 우리 회사군(會社群)의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할 대리업자나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사업자(joint venture)를 찾고 있습니다."

체코 동부의 올로묵(Olomouc) 지역에 위치한 나노 트레이드(NanoTrade)사의 라디슬라브 토르치(Ing. Ladislav Torcik, torcik@nanotrade.cz) 업무 이사는 이같이 말했다. 토르치 이사는 나노 트레이드 회사를 방문한 기자 일행에게 나노 기술이 어떻게 제품생산에 활용되는지를 영어 설명을 통해 잘 보여주었다. 토르치는 나노 기술이 적용된 용액으로 표면이 처리된 넥타이에는 케첩이 묻어도 이것이 아무런 오점을 남기지 못하며, 마치 표면이 특수처리된 거울에서 물방울이 흔적 없이 떨어져 내리듯 케첩이 흘러 내리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토르치에 의하면, 나노 기술이 적용된 특별 용액(FASTEX 3rd)이 의복이나 일반 제품의 표면에 두 차례 처리될 경우 현미경으로 본 표면은 완벽하게 평면으로 변해 물방울(액체)이 확산되지 못한 채 물방울과 표면이 접하는 각도가 118도 된다는 것이다. 1차 처리에는 그 각도가 90도이다.

또 다른 제품도 있다. 나노 기술이 적용된 용액(나노실버, nanosilver)을 양말이나 의류 등에 발라주면 이런 의류에는 박테리아가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으로 의류(양말)에는 몸냄새(발냄새)가 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솔린 등 연료에 나노 기술이 응용되면(Envirox TM 첨가제를 넣으면) 연료가 완전 연소돼 에너지 소비가 10% 감소된다고 한다.

나노 트레이드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 현재 보급망을 확산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토르치는 "나노 트레이드는 나노 기술을 응용한 제품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인근 대학의 연구팀, 동일 공업단지에서 입주해 있는 여러 나노 기술 응용 회사들을 연결하고 있다. 나노 트레이드는 여러 회사들을 엮은 회사군(會社群) 나노 기술 응용 회사들 로지 클러스터, Czech Nanotechnology Cluster, Cesky nanotechnologicky klastri)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회사에는 불과 4명의 직원이 있다. 토르치는 "나노 트레이드는 업무의 성격상 거의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의 동부 올로묵 지역의 공업단지에서 위치한 나노 트레이드(Nanotrade, www.nanotrade.cz)는 인터넷으로도 거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오라(Come to grow to us)"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회사의 건물 정면에는 '수업을 기른 어린이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어린 기업이 신속히 성장하려면 나노 트레이드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회사 광고로 보인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토르치가 자신의 이름 앞에 쓴 "Ing."라는 직함은 이공계의 석사 학위 소지자(대학에서 5년간 공부한 뒤 이 학위를 취득)를 의미한다. 기자는 이번 체류 중 체코의 공업-기술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Ing. 학위를 가진 인사들을 여럿 만났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 엔지니어(ingenieur, 영어로는 engineer)와 철자가 유사하다.

기자는 체코어를 접하면서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연상했다. 한국외대 체코-슬로바키아어과의 김규진 교수(용인캠퍼스 부총장)는 "체코어는 폴란드어나 러시아어와 유사하지만 독립적 체계를 가진 언어"라고 설명했다.

<설원태 선임기자 solwt@kyunghyang.com>

입력 : 2008-12-17-15:19:05 | 수정 : 2008-12-17 15:18:49

꽃던지기 돌던지기

아이나비

운 전스킬을 높여라!

현금없이 구입하기!

- 많이 본 기사 | 최신기사
- 1 이재웅 삼성전자 전무 이혼 소...
 - 2 미 국무부 '북 미사일' 직첩..
 - 3 미 대북특사 보스워스 유력
 - 4 자취 감춘 중국인 '서해 긴장'
 - 5 北, 미사일 단계 압박...美 항해..
 - 6 美 전함 이통 경계태세 외교적...
 - 7 "용산참사 호도"...홍·경철..

플러스 인포

- 배가 따뜻하면 왜 살이 빠질까?
- 명품 아이나비 신청하고 가져가기
- 무수술 음경확대기구 사이즈닥터
- 라식/라섹, 합리적 가격에 90만원?
- 컴퓨터 국내 최저가 168,500원
- 그와 나를 만족시킨 비법 대공개!

연예 스포츠 매거진

재개발사업의 지혜는 없는가 | 약장 드라마도 보게하는 힘

- 진화하는 연쇄살인범, 강호준은 달라
- '깔끔한 박근혜와 '강인한 추미애'
- 서울대학교 1970년~80년대 '인더서클'

프리미엄 인포

- 임플란트 비용이 고인된다면?
- 건강식품 40~75% 대할인
- 직장인을 위한 사이버대학
- 집! 단 1회시술로 부리까지 완전..
- 콘도정회원권 무료증정!!

00인사폰 번호이동0원 | 건강식품50% 할인사내 | 보아유고실은 글-노트북

포토동영상 포토뉴스 | 동영상

"아이나비지 불태웠다 밀요라?" | "자판 남은 국밥 슬레폰 복원현장"

공감댓글 | 더보기

- 청문회는 재미삼아 한번해보고.
- 있는놈들끼리 잘 살아봐라!
- 국민과 소통 무시를 선언한 이명박!
-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 경찰, 검찰들의 법정신은 뭘(?)이다
- 그대여, 그대답게 두박두박 걸어가라!

주목!! 라식라섹 90만원